

社會化와 人格形成

—학사경고자의 學業成績에 미치는 自我概念의 要因研究—

趙 義 淑*

- | | |
|--------------------------------|--------------------------|
| I. 序 論 | (School Achievement) |
| II. 本研究의 理論的 背景 | III. 學業優秀者와 學事警告者의 學業成績에 |
| 1. 社會化(Socialization) | 미치는 要因研究를 위한 自我概念檢査와 |
| 2. 人格形成(Personality Formation) | 學習習慣檢査를 통한 原因分析 |
| 3. 自我概念(Self-Concept)과 學業成就 | IV. 要約 및 結論 |

I. 序 論

현대 사회의 급격한 變動에서 야기 되는 大學의 문제는 行・財政, 經營・管理面이나 教育內容・教科課程, 教育理念・哲學面에서도 많은 변화와 연구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한국 대학은 팽창 일로에 있는 거대한 人口集團으로 발전하여 가고 있는 중에 대학의 質的 水準의 문제와 더불어 學生의 지도문제는 큰 이슈로서 등장되고 있다. 人格形成 과정에서 大學生이 처해 있는 生活周期의 단계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대학생활을 효과적으로 적응시키게 하는 학생지도의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도 없겠거니와 그 不適應에서 야기되는 인격적 결손은 개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적으로 볼때도 共同體의 심각한 결손현상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대학생을 중심으로한 社會化와 人格形成의 이론적・실제적 연구는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되며, 이를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自我概念 檢査도구를 통한 객관적 측정비교는 교육현장연구의 실제적 문제를 미시적으로 파악하여 학생지도 행정에 반영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1. 研究의 必要性

教育의 基本課業이 人間을 社會化시키는 과정이라고 하면 教育의 窮極的인 目標의 到達點

* 文理科大學 教授

은 人格完成에 있다고 본다. 그런데 1967년 이후 每年 本校入學生에게 실시한 各種 心理檢査의 結果를 연구해 볼 때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斷定지을만하지 못한 學生이 增加됨을 발견하고, 檢査結果와 學業成就度와의 相關性을 研究하여 그 原因을 밝혀낼 必要를 느꼈다. 또 이 研究는 本人이 1972년도에서 75년까지의 入學生을 中心으로 연구한 “韓國 大學生의 性格特性의 類型과 그 要因에 關한 研究”¹⁾에서 언급한 바 있는 “性格과 自我概念과 학업성적과의 相關性을 研究한다”²⁾와 一貫된 研究임을 밝혀두고 이에 必要한 재정적 支援을 文教部에서 받아 研究를 可能케 하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大學에서 학사경고자란 學業성취의 水準이 낮은 학생을 말하며 大學에 따라서 약간씩 그 수준이 다르다.

本校에서는 受講登錄한 全科目의 平均評點이 1.00미만자와 1.50미만자의 二 종류로 나뉘서 學사경고를 하게 되었다. 學사경고방법은 현재 80년도말에 2회까지 수강학점을 제한하는 경우와 2회가 넘으면 제적하는 규칙을 定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은 個人生活과 團體生活의 適應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심한 劣等感에 사로잡혀서 일체의 學業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 최근에는 이들 中에서 反社會的 行動의 징후마저 나타내는 學生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狀況에서 學業指導上 制限條件을 제시하고 경고를 하므로 自律的으로 學習意欲과 動機를 유발할 뿐아니라 學生指導의 政策樹立과 一貫된 지도대책을 강구하는 데도 연구해 야할 必要를 切感하게 되었다.

2. 研究의 目的

研究의 必要性에서 밝힌 바와 같이 學業부진의 原因을 究明하므로써

첫째, 指導方案의 具體的인 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삼으며

둘째, 學業부진의 要因이 환경적 요인에 더욱 起因됨을 밝혀서 自發的 原因除去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여 研究의 目的을 설정해 보고자 한다.

첫째, 大學生의 社會化過程의 結果를 自我概念檢査에 어떻게 나타내는가?

둘째, 자아개념과 學業성적과의 關係는 어떻게 나타내는가?

셋째, 社會化理論과 人格(性格)理論의 教育과의 關係는 어떻게 맺어져 있는가?

네째, 기타 檢査의 結果는 學業성적에 어떤 影響을 끼치고 있는가?

이상과 같은 질문의 解答을 다음의 두가지 假設에서 實證해 보고자 한다.

첫째, 社會化과정에 따라서 자아개념이 形成되므로 自我概念이 學業成就度에 影響을 줄

1) “韓國大學生의 性格特性의 類型과 그 要因에 關한 研究”, 崇田大學校 論文集(第六輯, 1976)

2) 上揭書, p. 417

것이다.

둘째, 사회화이론과 人格理論의 相關性은 學業성취의욕을 左右하게 되고 따라서 學業부진의 原因이 되므로 原因診斷을 하여 客觀的인 自己理解를 시키면 學業성취도도 上昇될 것이다

3. 研究內容

(1) 精神的 缺陷(知能面)

主로 入試성적과 學사경고대상자 學점과의 相關度

(2) 情緒的 缺陷

정서적인 不安, 자신감의 결핍정도

(3) 社會性的 결핍.

交友關係 또는 家族關係等 社會的 成就度

(4) 學習習慣

學習習慣檢査에 나타난 要因分析

4. 調查對象

1976. 77. 78학년도 入學者中 學사경고자(비교집단 76. 77. 78년도 學業우수자 즉, 평균 평점 3.7이상자와 1979학년도 入學者中 學사경고자)

5. 研究方法

(1) 文獻研究를 通하여 學業부진의 一般적 原因을 알아본다.

(2) 基礎資料研究는 교무처의 協力을 얻어 學적부 및 입학사정서류를 調查하고, 이미 實施했던 檢査結果들을 再檢討하여 參考資料로 活用하며 問題把握을 明確히 한다.

(3) 實態調查를 선정된 대상에게 實施한다.

ㄱ) 檢査道具는

① 自我概念檢査——鄭元植, 서울大學校. K.T.C 發刊

② 學習習慣檢査——金基錫, 고려大學校. K.T.C 發刊

ㄴ) 實施한 檢査結果를 처리하여 그 結果를 가지고 研究目的 達成에 妥當한가를 檢證하고 해석한 후 理論的 背景에 비추어 結論을 내려서 지도방안을 제언한다.

6. 研究日程

本研究는 1978, 79년 2년간이었으나 文敎部 研究費수혜자로 決定通告를 받은 후 文敎部위탁 교육인 中等學校 英語敎師研修院教育課程開發研究와 研修院 運營을 책임맡게 되었다. 1980년

3월末에 研修院 教育結果報告書를 끝낸후 학원사태로 연기해 왔던 것이다.

Ⅱ. 本研究의 理論的 背景

1. 社會化(Socialization)

(1) 社會化의 概念

人類가 그 進化의 과정에 있어서 本能보다는 文化에 依存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助力이 必要하게 된다. 그것은 단순히 生物學的으로 養育한다는 의미에 있어서만 아니라 社會의 人格의 形成 즉, 社會化라는 의미에 있어서도 그렇다. 만일 이런 社會化가 順調롭게 되지 않으면 人間個體의 존속 뿐만 아니라 人類文化의 존속도 위태롭게 될 것이다. 여기서 人間의 本能에서 文化에 依存도가 높아질수록 必然的으로 出生하는 子女에 대한 育兒나 社會化의 責任者에 대한 社會規制가 必要하게 된다. 生産한 아기에 대한 社會化의 責任者는 바로 家族集團의 兩親이 生物學的 存在로서의 아이를 文化的 存在로서의 人間으로 成長發達시키는 것이다.³⁾ 여기에 가정교육의 機能의 重要性이 強調될 수 밖에 없다. 가정이나 학교라는 文化環境을 통하여 社會化되는 과정은 두가지면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社會規範이나 價値觀, 그리고 社會理想을 內面化하는 일이며

둘째는 集團에서 認定받기 위하여 그 社會集團에 적응하고 同一化하면서 個性을 形成하는 것이다.⁴⁾

그러므로 既存社會의 여러 形態의 行動樣式이나 規範과 文化 등에 接觸하면서 社會的 要求 및 役割 등을 順次的으로 自己自身이 받아들여서 內面化시키므로써 社會的 存在에 轉化되어지는 과정을 一般的으로 社會化라고 부른다.⁵⁾

人間은 個體(individual)로 出生하여 personality 로 育成된다고 한다. Personality 란 學者들의 강조점에 따라서 說明이 다르지만 個人과 社會的·文化的 環境과의 相互作用에서 成長發達하는 것만은 一致하며 個人의 社會化는 社會의 基本單位인 家族集團에서부터 시작됨을 否定할 수 없다. 그리하여 社會 文化的 環境에서의 活動범위가 넓어질수록 새로운 文化的 習得과 適應이 必要하게 된다.

※ 崇實大學 論文集 2輯, 1970, pp. 222-224, 崇田大學校論文集 1978, pp. 60-61 先行研究參照

3) 森岡清美編, 家族社會學(東京:有斐閣雙書, 1967), p. 70

4) Georgy Mauly, Psychology of Effective Teaching, (New York: Holt, Rinhart & Winston, 1965), p. 144

5) 松原治郎, 核家族時代(東京:日本放送出版協會, 1975), pp. 78-79

(2) 社會化 過程

人間은 大體的으로 모두 同一한 生理的 欲求를 가지고 있으나 서로 다른 社會에서 成長한 사람들은 간혹 아주 다른 가치체계와 社會적 동기유형을 갖게되므로 적응하기 위하여 外的 要求가 强하게 作用하게 된다. 이러한 外的 要求가 점차적으로 社會化的 過程을 통하여 內的 要求가 되면서 自기의 性格으로 統合시켜 간다. 즉, 父母에게 수용된 社會적 價値가 內面化되어서 일단 학습된 것은 一生동안 活動을 作動시키고 方向指示를 하는 強力한 힘으로서 계속 作用하게 된다. 그것은 生理的인 自己保存의 欲求를 압도할 정도로 強力해지기도 한다.⁶⁾

近者에 이르러서 社會化와 人格發達에 關한 研究는 많이 發表되었고 또 活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人類學者나 精神分析學者나 또 社會人類學者等은 立場들을 달리하여 人間의 社會化과정과 人格發達 또는 形成過程을 研究하여 왔다. 오늘날까지도 人類學者들이 社會化的 重要性에 대한 覺醒을 불러 일으킨 貢獻이 있는 한편, 精神分析學者들은 어떻게 社會化가 人類發達에 影響을 끼치는가에 대한 풍부하고도 독특한 前提들을 제공하였다 Freud의 社會化과정과 人格發달에 關한 연구공적은 研究家들에 있어서 아직도 中心的 役割을 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많은 社會科學者들이 Freud의 學說의 影響을 받아서 社會化的 要素로서 親-子關係가 人格發달에 가장 決定的인 影響이 된다고 하는 점도 家族社會學에서 강조되고 있다.⁷⁾ 이렇듯 人類學者와 精神分析者들 間에 相互聯關的인 研究關係는 계속되어 오고 있다.

(3) 社會化 理論

近者에 이르러 두가지 논쟁이 생겼다.⁸⁾

첫째, 人間은 아이나 어른이나 社會化시키기 위하여 能動的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受動的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고

둘째, 本質的으로 人間은 肯定的으로 대처하느냐 아니면 否定的인 냐의 물음이다.

첫째 물음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들(Harlow 1953 ; Kesson 1963 ; R.White 1960)은 아이를 社會化시키기 위하여서는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理由는 아이의 발달을 위하여 重要的 役割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習慣形成을 위해서는 Skinner 학파의 연구자들의 주장대로 社會化과정은 外的인 보상과 징벌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바람직한 行動樣式으로 習慣化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 Maslow(1954)나 Allport(1955)는 反對로 自我實現理論을 주장하여 아이의 先天的인 性向이 있기 때문에 성장발달하는데로 助成시켜

6) 徐鳳延, 性格과 適應, 現代心理學全書(서울: 益文社, 1976), pp. 14-15

7) E. E. Zigler and I. L. Child (ed.) Socialization and Personality Development (Reading, Mas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3), pp. 3-6

8) Ibid., p. 28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여 소극적이면서 受動的인 見解를 갖고 있다. 이러한 見解 즉 소극적인 側面에서는 Dager의 社會化方法(1964)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제를 들었다. 첫째는 個體란 사회적이거나 反社會的이 아니라 도리어 利己的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둘째는 유전이나 다른 생물학적 要素들 때문에 個人差를 무시할 수 있다.⁹⁾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가만히 두어도 자연히 발달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둘째 물음에 대하여는 Parsons(1958)와 같이 아이自身の 社會化과정에서 무엇인가하려고 하는 능동적이고 肯定的인 行動者가 바로 아이 자신이라고 주장한 것은 Kesson(1963), White(1960), Anderson(1957)과 Harris(1963)등 발달주의자들에 의하여 同調되었다. 다른 한편 父母와 環境의 영향을 받으면서 受動的(被動的)으로 어떤 型에 맞추어서 社會化되다는 見解(Weners 1963, Bell 1965)도 있다. 이러한 견해는 兒童心理學에 있어서 더이상 설자리가 없어졌고 古典的인 精神分析學者나 미국의 學習理論家들에 있어서 계속 지지자를 발견할 뿐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오늘날 社會化過程도 受動的인 理論에서 아이自身이 自發的이며 能動的이고 肯定的인 行動者라는 견해로 옮겨오고 있다. R. Brown(1965)이나 Kahlberg(1966)등은 外的으로 強壓的인 統制나 價値觀의 注入같은 것이나 父母의 超自我(Superego)의 內面化같은 것을 주장하는 학설은 점점 부적당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¹⁰⁾고 하였다.

生物學的 要因이 社會化에 있어서 個人差를 나타내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 社會化과정의 포괄적인 理論에서도 개인차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生物學的 要因은 또한 社會化의 統合과정에도 重要한 役割을 하게되며 아이 자신이 社會化의 能動的인 행위자라는 견해는 生物學的 要因에 關心을 둘 뿐 아니라 그 要因에 關心을 갖도록 자신이 성장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Wrong(1961)의 表現에 의하면 “文化的 繼承”으로서의 社會化에서, “人間形成의 과정”으로서의 社會化로 分明히 달라져 가고 있다고 하였다.¹¹⁾

이상과 같이 社會化이론에 대하여 두 極端的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중요한 포괄적인 단어인 自己實現에 대하여는 아주 놀랄만큼 共通點을 認定하고 있다. 그러므로 社會化란 넓은 의미에 있어서 個人이 他人과의 交互作用을 통하여 또는 特定한 社會形態에 맞는 行動과 經驗을 통하여 발달하는 과정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¹²⁾ 다시 말하면 內在되어 있는 생물학적 구조와 문화적 사회적 구조안에서 쌓여지는 經驗과의 상호관계에서 이루어진 소산이라고 보는 것이 Personality의 현대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시절의 기초가 없이는 後년에 필요한 기술습득이 어렵게 되고, 社會化의 기대와 과정이 순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

9) Ibid., p. 29

10) Ibid., p. 30

11) Ibid., p. 31

12) Ibid., p. 36

했을때에는, 후년에 다시 습득할 수 없게 되어, 좌절감과 무능력을 실감하게 되며, 사회생활에 부적응상태를 나타낸다.¹³⁾

특히, 근심과 활동은 인간활동 즉 감정, 사회화, 동기화, 학습의 효율성에 따르는 융통성 있는 문제점 해결력과 창의성 등 모든 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또 부모를 통해서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으로 허약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적절한 활동의 변화를 바람직하게 습득하지 못했을때 사회생활을 통해서 얻은 만족스러운 생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위환경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¹⁴⁾

2. 人格形成(Personality Formation)

(1) Personality의 概念

Personality는 社會生活을 통해서 習得된 것이며 人間의 可能性을 토대로 出生時부터 人間이 되는 과정을 밟아서 啓發되는것이라고¹⁵⁾ 社會・文化的 立場에서 定義하였다. Personality의 概念은 本人의 先行研究¹⁶⁾에서 밝힌 바 있다. Personality란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게 定義를 내리고 있으나 大體的으로 들로 나눌 수 있을듯하다. 하나는 本來 出生때부터 個體로서 지니고 있는 要素 즉 生物學的 遺傳的인 要素가 社會的, 文化環境의 자극을 받아 社會的으로 “發達한다”라고 하여 “Personality發達面”에 力點을 두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Personality란 本質은 社會的・文化的 要素이므로 生物學的 遺傳的 要素는 다만 그 기초에 지나지 않으므로 社會的으로 “形成된다”고 “Personality 形成面”에 重點을 두는 것이다.¹⁷⁾

社會化理論에서 上述한 바와 같이 Personality에 關해서도 人格發達(Personality development)과 人格形成(Personality formation)概念에 대한 두가지 立場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ee는 Personality를 二側面에서 說明할 수 있다고 하였다.¹⁸⁾ 그 하나는 外顯的인 面인데 他人과 나 自身에 대하여 活動하는 役割과 位置에 따르는 것이며, 社會와 文化的인 影響에서 形成된 習慣이나 行動을 말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內在的인 面을 강조하는 편인데 나 自身과 他人의 行動을 判斷할 수 있는 힘과 目的과 動機를 左右하는 內的인 힘에 關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Horton과 Hunt는 人格發達(Personality Development)에는 (1) 유전 (2) 물리적 환경 (3) 文化 (4) 集團經驗 (5) 독자적인 경험 등 다섯가지 要素가 있다고 하였다.¹⁹⁾

13) Georgy Mouly, op. cit., pp. 430-432

14) Ibid., p. 55

15) F. E. Merrill, Society and Culture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62), p. 151

16) “心理—社會環境이 性格形成과 變容에 미치는 영향”, 崇田大學校論文集(第2輯, 1970), pp. 216-219

17) 松原治郎, 前掲書, p. 79

18) A. M. Lee, (ed.), Principles of Sociology (New York: Barnes & Nable Inc., 1962), p. 151

19) P. B. Horton & Hunt, C.L., Sociology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64), p. 94

유전은 人格의 生得的 素質을 갖추고 있어서 여러 方面으로 달리 형태를 만들게 되며, 또한 人間의 性格中에나 文化中에서 비슷한 點들이 있는 것은 共通의인 유전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 환경에 대하여 Sorokin(1923)이나 다른 학자들이 集團間的 行動의 差異는 主로 地理的 條件의 相違에서 온다고 主張하였으나, 傳統이 물리적 환경보다 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오늘날 강조하는 편이 우세하다. 그것은 地理的 條件의 變動없이도 社會的 變動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이므로 人間은 出生時부터 個體로서 人間社會라는 集團內에서 익히는 態度와 價値, 好와 不好, 目的과 理想, 그리고 反應 등을 內面化시키면서 動物的 存在에서 人間的 性格의 所有者로 되어간다는 것이다. 즉 集團의 生活樣式을 內面化하므로써 自我의 獨特性을 個體에서 나타내는 과정이 人格形成이라고 하였다. Personality의 概念에 對하여 全體의인 立場에서 보는 見解는 Allport였으며 그는 “Personality는 個人의 統合적인 社會的 役割方法을 決定짓는 內在的 特性의 力動的 體制이다”²⁰⁾라고 定義하였다. 要約하면

(1) 全體性 : 人格은 個人과 環境과의 連關性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特性의 全體를 包含한다. 外顯的인 것과 內在的인 것의 全體를 뜻한다.

(2) 統一性 : 人格은 精神과 身體와의 統一된 心理—物理的 組織(Psycho-physical system)으로써 포착된다. 그 統一者는 自我인 것이다.

(3) 個別性 : 人格은 個人의 그 環境에 對한 獨自的인 適應(Unique adjustment)을 할 때 나타난다. 이것으로 因하여 他人과 區別된다.

(4) 力動性 : 人格은 靜止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個人이 그 環境에 대하여 적응할 것을 規定하는 力學的 體制(dynamic organization)이다. 그러므로 그 적응은 個人과 環境과의 力學的 關係에 따라서 決定되는 것이다.

(5) 形成性 : 人格은 出生時부터 固定되어진 것이 아니라 環境에 適應하면서 再體制化(re-organize)되어지는 것이다.

性格(Character)이란 Wundt는 意志의 素質이라고 하여 要素的인 定義를 내렸지만 現代에는 Allport가 “性格은 評價된 人格이며 人格은 價値評價를 떠난 沒價値的인 性格이다”고 한 見解를 밝혔다. 그러므로 正直, 勤勉 등 道德的으로 評價된 人格의 特性을 가르켜서 性格이라고 하였다.²¹⁾

3. 自我概念과 學業成就

(1) 自我像

教育은 成長發達하는 兒童에게 社會속에서의 個人의 役割과 位置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

20) H. C. Smith, Personality Development (2nd ed.)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74), p. 6

21) 阪本一郎 著, 圖說 教育心理(東京: 岩崎書店, 1964), p. 100

극을 주고 目的設定을 위하여 自己가 理想으로 하는 人間像을 明確히하고, 現實的인 自我像을 確立하는 일에 도와주어야 한다.

Cooley 는 基本集團(Primary group) 즉 가족집단, 놀이집단, 이웃의 成員으로서의 重要性을 강조하고 各集團을 통하여 社會의 基本的 生活樣式을 배우게 되며 同時에 人間으로서의 感情이나 특징이 지워지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렇게 사회적 경험을 통하여 自我(Self)와 社會와의 關係를 認識하게 되며 自己의 行動이나 모습이나 생각이 他人에게 認定을 받으므로 自己를 또한 인정하게 된다고 보고 이것을 自我像(Self-image)이라 하였다.²²⁾

(2) 自我概念

Jung 에게 있어서 Self 는 精神(영혼) 또는 全人的인 Personality 와 同等하게 보았다. 全體의 心理의 概念이 Self 이므로 Personality 의 核心이 Self 이고 모든 다른 體制들이 星座와 같이 둘러싸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統一과 均衡과 安정을 이루고 서로 依存性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그에게 自我概念은 가장 중요한 心理的 發見이며 archetype(원형)의 集中的 研究의 最高絶頂이기도 하다. Jung 은 20世紀 第一의 心理學的 理論家로 꼽히고 있으며 60年間 單一目的을 가지고 人間의 Personality 에 대하여 넓고 깊은 面까지 考察하는 일에 全力을 쏟았던 것이다.²³⁾ Jung 의 Personality 연구에 대한 요약들은 本人의 論題 “韓國大學生의 性格特性의 類型과 그 要因에 關한 研究”²⁴⁾에서도 論한 바 있다.

兒童들이 성장발달할때 社會를 배우고 그 속에서 살며 自己를 알아낸다. 自我概念은 個人의 覺醒된 全體와 自己評價 그리고 自己期待 등을 總和的으로 稱하는 것이며, 이런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졌으며, 또 어떻게 다른 사람과 相互作用을 하며, 生의 經驗으로 삼는가하는 것을 統合하는 것이다. 이러한 自我概念을 形成하는데는 一定한 行動規則에 따라서 內面化해가는 것이며 이것은 主體的인 行動過程을 거치게 된다.²⁵⁾

(3) 自我概念 理論

自我概念은 個人的이고 內面的이기 때문에 어떤 연령에 어떻게 變化하는지는 확실히 알기 어렵다. Erikson 이나 Piaget의 學說에 의하면 발달단계에 따라서 進展된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自我概念이 個人의 행복과 발전에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學者들이 이것을 調査하고 測定하고 研究해 왔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總和的인 意味를 모두 파악하지 못했고

22) Ely Chinoy, *Sociology* (New York: Random House, 1962), p. 51

23) C. S. Hall and Lindzey, G., *Theories of Personality* (2n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70), pp. 80-88

24) 趙義淑 “韓國 大學生의 性格特性의 類型과 그 要因에 關한 研究”, 崇田大學校 論文集(第6輯, 1976), pp. 422-424

25) B. R. McCandless and Trotter, R. J., *Children-Behavior and Development* (3rd ed.),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77), pp. 510-512

다만 Personality 의 주요한 部分이라는것 만은 확실해졌다²⁶⁾고 한다.

Horrocks 는 人間의 行動類型을 두가지로 나누었는데 그 하나는 目的志向의인 正常人의 行動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緊張感에 사로잡혀있는 問題兒의 行動을 말한다. ²⁷⁾ 行動診斷의 核心은 心理學的으로 原因究明을 하는 일이지만 아무도 근본적인 原因을 찾아내고 치료하지 않는 한 正常的인 行動으로 바꿔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普通 危險한 일은 나타나는 징후를 가지고 原因을 깊이 찾아보지 않고 치료하려는 일이다. 물론 징후가 생긴 것을 停止할 수 있는 일시적인 効果는 있을 수 있으나 그보다 근본적인 치료는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치료는 原因을 除去해 주는 일이라 하겠다. 모든 行動의 外顯的 問題는 目的志向性에 대한 個人의 反應方法에 따라서 問題 해결의 실마리를 잡는 것이 重要한 일이다. 目的志向의 行動의 持續性이나 強度는 두가지 범주에 따른다.

첫째, 근본적인 生理的 欲求是 人間行動의 決定的이고도 強力한 要因이 된다. 生理的 欲求 充足에는 個人과 文化와 環境적 影響에 따라서 個別的으로 또는 狀況에 따라서 다르다. 한 個人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또한 다르다.

둘째, 공들여서 쌓아올린 後天的 欲求是 일곱가지로 分類하였다. (1) 生計유지를 위한 欲求 (2) 情緒的 安情感 (3) 支配欲 (4) 認定感 (5) 適應欲 (6) 性欲 (7) 複合的인 要求 등이다. 이것들은 內在的인 것의 발달을 促求하는 外的 자극의 조건에 따라서 나타나는 要求들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적응행동을 요하는 要求들간에 갈등이 있을때 어쩔 수 없는 강한 욕구 좌절이 생긴다는 것이다.

어떤 要求가 行動에 나타나는가하는 것은 어떤 方向으로 또는 어떤 狀況에 따라서 강하게 자극이 되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므로 그때의 個體의 內面的인 狀態와 對象이 갖는 屬性에 따라서 그때 그때 決定되는 것이다. 바람직한 行動의 決定을 할 수 있도록 民主主義에 立脚한 教育을 하려면 國家權力에 偏重되거나 또는 個人的인 功利主義의 要求를 放任해두는 일이 없도록 사회와 個人과의 健全한 調和를 目標로 하여 全人으로서의 人格的 適應을 할 수 있도록 힘쓰는 일이다.

(4) 自我概念과 학업성적²⁸⁾

자아개념이 不確實한 사람 즉 환경에 대하여 自信感이 없게 對하는 사람은 學校內에 있어서 모든 活動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학과목이나 學校에 대한 만족감과 자아개념과의 관계는 많은 研究家들에 의하여 研究되어 왔다. ²⁹⁾ 연구결과는 國民學校生부터 大學生까지 자아

26) Ibid., p. 515

27) J. E. Horrocks, The Psychology of Adolescence, (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62), pp. 486-488

28) McCandless & Trotter, op. cit., pp. 524-525

29) McCandless & Trotter, op. cit., pp. 524-525 再引用

개념의 점수가 낮으면 학교성적도 不振하게 된다고 하였다.³⁰⁾

學業不振兒와 자아개념과의 關係는 情緒的인 不適應狀態에서 더욱 그렇다. 그 理由는 自信感있는 學生보다 열심히 하지 않는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失敗感에서 오는 感情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한다. 그리고 自信感과의 關係에서는 Stanley Coopersmith의 研究에 의하면 3,800명의 아동(8~13세)에게서 발견한 것인데 知能檢査가 높은 學生이 平均値의 知能所有者보다도 낮은 자아개념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平均的인 아이는 많은 아이들이 좋아하고 또 그아이의 생각에 잘 따라주는 때문이라고 했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知能이 높은 아이에 대하여서는 敎사와 父母가 너무 期待를 하게 되므로 복잡한 感情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자아개념과 學業성적과의 關係는 아주 복잡한 要因이 있다. 積極적이고 肯定的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성적에 成功한다고는 볼 수 없다. 學業성적은 여러 要因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單純한 個人的 特征에만 依存할 수 없다. 그 關係가 복잡적이라 할지라도 學校活動의 成功도와 自信感을 만들어 주는 것만은 의심할 餘地가 없다. 學校에서는 가정을 떠나 처음으로 자기를 시험해 보는 장소다. 成功的으로 적응하면 自信感도 발달하지만 反對로 부적응하게 되면 自信感을 잃어 버리게 된다. 자아개념과 學業성적과는 아주 가깝게 關聯되어 있으므로 自信感을 상하는 일은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學業不振의 原因을 또한 (1) 좋지 못한 가정환경 (2) 학습습관의 결함 (3) 정서적 불안감 (4) 不良交友關係등의 要因이 있다고 지적한바도 있다.³¹⁾

오늘의 많은 學生들에게 있어서 경험하는 “표준화 충격”을 克服하고 成功하려면 오직 강한 學生만이 自己自身の 일을 해낼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學生들은 특별지도와 보살핌이 없으면 大學의 壓力속에서 自身을 미쳐 발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自我實現의 기회마저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단순하면서 획일적인 University 안에서 위성과 같은 大學으로 存在하려면 분위기 조성이나 학습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일이 더욱 어렵게 되므로 學生들은 自信感을 점점 잃어버리게 된다. 學業성적은 知能에 相關性이 크다고 하나 人格形成에 있어서의 여러 다른 要因에도 기인된다고 하였다. 學業成就에 연관되는 것은 非知性的의 要因이 더 영향력이 있다고 Stein은 밝히고 그는 최근에 人口統計學的, 心理社會的, 制度的으로 多樣하게 연구한 결과 학습행위와 既成된 性格要因과의 사이에도 決定的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다.³²⁾ 그의 結論은 人格的인 完成을 目標로한 既存大學制度를 강화하는 方法에 失敗한 大學生과 大學에 對하여 報告한 것이다. 심각한 挑戰은 敎授體制에 있어서나 大學분위기의 多樣성과 단

W. W. Purkey, Self-Concept and School Achievement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70)

30) B. R. McCandless and E. D. Evans, Children and Youth: Phychosocial Development (Hinsdale, Ill., Dryden Press, 1973) 再引用

31) 方順同, 敎育評價(서울:法文社, 1972) p. 30

32) Max Siegel, (ed.) The Counseling of College Student (New York: The Free Press, 1968), pp. 34-35

순하고 획일적인 University 안에서 혜성과 같은 存在로서 大學을 만들어 보려는 의도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失敗感을 느끼게 만들어주며 따라서 많은 文理科大學生들에게는 教科中心教育課程보다는 폭넓은 教養中心의 교육과정을 더욱 요청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위에서 論한 바와 같이 학습의 진전을 막는 要因 即 學習장애에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生得的 無能도 있지만 환경의 부족, 情意的인 障礙, 人間關係의 장애, 잘못된 習慣形成, 경험의 부족, 방법의 부족등도 있다. 이런 장애된 要因들을 除去하는 것은 다만 학습의 진전을 촉진시켜주는 데 효과뿐 아니라 그 학생의 集團의 位置와 자아신념을 올려주는 좋은 학습상태도 助成할 수 있는 것이다.³³⁾

Atkinson은 그의 성취행동이론³⁴⁾에서 성취목적에 접근하려는 性向은 세가지 要因의 산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성취욕구 혹은 성공에 대한 動因, 성공확률, 성공의 자극적 가치이다. 성취동기가 낮은 사람은 모든 成就課業을 어느정도 싫어하며 또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Weiner는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특히 達成해야 할 課業이 몹시 어렵다거나 혹은 매우 쉬운것보다 중간정도의 어려운 과업을 더 싫어하고 있다. 그러나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의 정도가 中間的인 課業은 최대의 동기유발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성취동기가 낮은 학생들보다 높은 학생들이 中間程度의 어려움이 있는 과업을 훨씬 더 택하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연구가 있으며 이것은 곧 Atkinson의 理論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大學生들의 성취욕구와 과목선택에 관한 Issacson의 연구는 동기가 높은 學生들이 낮은 학생들보다 학점을 따기가 보통 수준인 科目을 훨씬 더 많이(약 60%) 택하며 낮은 學生들이 높은 學生들보다 학점을 따기 쉬운 科目과 어려운 과목을 더 많이 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Ⅲ. 學業優秀者와 學事警告者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要因 研究를 위한 自我概念 檢査와 學習習慣檢査를 통한 原因分析

1. 實態調查節次 및 期間

(1) 對象者의 決定

- ㄱ) 1976, 77, 78學年度 入學者中 學業優秀者와 學事警告者를 抽出하여 一覽表를 作成하고
- ㄴ) 이미 實施한 自我概念檢査(76—78學年度入學者)의 結果와 처리된 資料들을 정리하고 再檢討하여

33) 鄭範謨外, 教育評價, 現代教育叢書 4(서울:大韓時報社, 1960), p. 341

34) 朴俊熙, 卞鍾憲, 教育의 心理的 基礎(서울:正益社, 1979), pp. 215-216에서 再引用

ㄷ) 해당자 일람표를 作成하고 再受檢對象者를 決定하였다.

(2) 檢査紙 配付時期 및 回收

ㄱ) 自我概念檢査紙와 學習習慣檢査紙를 78學年度 1學期에 在籍中인 學業優秀者 14名과 學事警告者 154名, 總 168名에게 配付하고

ㄴ) 檢査紙 回收期間을 78年 5月 30日부터 6月 11日까지 2주간으로 設定하여 回收하였다.

(3) 檢査紙 處理

ㄱ) 回收한 檢査紙를 컴퓨터로 처리하여 結果를 얻었다.

ㄴ) 회수율은 自我概念檢査 79名(51.3%)과 學習習慣檢査 72名(46.7%)이었다.

ㄷ) 學業우수자와 學事경고자의 자아개념검사와 학습습관검사 結果를 비교하여 要因을 分析하고 原因을 糾明하였다.

2. 學業優秀者에 對한 調查

學業우수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다.

(1) 總 인원 (121명)

〈表 1〉 學業 우수자 總인원 總計

대학별	입학년도		7 6				7 7			7 8		총계
			학년도				77	78	계	78	계	
	77	78	76	계	77	78	계	78	계			
문 리 대	1	6	12	19	7	12	19	2	2	40		
법 경 대	1	2	3	6	2	4	6	4	4	16		
공 대	8	10	17	35	3	15	18	1	1	54		
2 부 대	—	2	3	5	—	2	2	4	4	11		
계	10	20	35	65	12	33	45	11	11	121		

(2) 實際人員 및 우수성적취득회수

〈表 2〉 學業 우수자 實際 인원 및 우수성적취득회수 總計

대학별			회 수	1	2	3	4	계
문 리 대			14	6	2	2	24	
법 경 대			14	1	—	—	15	
공 대			31	5	3	1	40	
2 부 대			7	2	—	—	9	
계			66	14	5	3	88	

(3) 재적인원. 수검대상자 및 검사지회수자.

〈表 3〉 우수자 재적 인원·수검대상자 및 검사지 회수자 통계 ()안은 회수자 임.

대학별	구분	총 인원	재 적 수	수 검 자 수			계
				7 6	7 7	7 8	
문 리 대		24	7	1(1)	4(4)	2(2)	7(7)
법 경 대		15	2	1(1)	1(0)	0(0)	2(1)
공 대		40	5	4(2)	1(1)	0(0)	5(3)
2 부 대		9	—	—	—	—	—
계		88	14	6(4)	6(5)	2(2)	14(11)

회수율 78.67%

3. 學事警告者에 對한 調査

학사경고자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사경고자통계

〈表 4〉 학사 경고자 통계(1976~78)

76년도는 3년간
77 " 2 " }의 인원임.
78 " 1 " }

대학별	구분	연인원	입학연도 실제 인원				경 고 회 수					
			76	77	78	계	1	2	3	4	5	계
문 리 대		54	21	16	12	49	37	9	2	4	—	49
법 경 대		82	16	29	23	68	54	14	—	—	—	68
공 대		475	125	108	73	306	192	71	30	11	2	306
2 부 대		100	27	22	14	63	35	21	7	—	—	63
계		711	189	175	122	486	318	117	39	12	2	486

ㄱ) 1976년 1학기부터 78학년도 2학기말까지 入學年度別로 연인원을 調査한 結果, 文理大 54名, 法經大 82名, 工大 475名, 二部大 100名으로 合計 711名이다. 76學年度 入學生은 六學期를, 77學年度 入學生은 四學期를, 그리고 78學年度 入學生은 二學期를 通算한 結果이다.

ㄴ) 同一人이 二回以上 警告를 받았으므로 實際人員은 486名에 달한다. 入學年度가 빠를수록 警告回數도 여러차례 거듭되었다. 反面에 늦을수록 학업 이수학기가 적어지므로 學年度가 올라갈수록 學事警告者數는 줄어든 傾向이다.

(2) 再受檢對象人員

自我概念檢査와 學習習慣檢査를 재수검한 人員은 다음의 〈表 5〉와 같다.

〈表 5〉 학사 경고자의 재수검사 인원 통계

구 분	연 도 별	7 6	7 7	7 8	계
경 고 자 수		189	175	122	486
대 상 자 수		26	49	79	154
재 수 검 자 수		13	16	39	68
비 율 (%)		50	32.65	49.37	44.15

※ 비율은 대상자 수에 대한 백분비임.

ㄱ) 76年度 學事警告者數는 189名이나 軍入隊, 休學, 自進退學, 또는 除籍者들을 제외하고 26名의 在學中인 者들을 對象으로 하여 檢査紙를 大學別로 配付하고 回收한 結果 13名(50%) 이었다.

ㄴ) 77年度 경고자 175名中 49名에게 檢査紙를 配付하였으나 이 學年度에는 性格診斷檢査 만을 實施하였으므로 入學當初에 자아개념에 대한 說明의 기회도 없었고, 재수검의 취지와 目的을 紙面으로 제시한 것으로는 설득에 不充分하여 회수율이 낮았다고 본다.

ㄷ) 78年度 警告者에게는 122名中 79名을 對象으로 實施하였고 그 結果는 39名(49.37%)에 게서 回收되었다.

4. 학업우수자와 학사경고자의 自我概念檢査比較

학업우수자와 학사경고자의 자아개념검사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의 〈表 6〉과 같다.

〈해석〉

ㄱ) 다음 表에 나타난 結果에 의하면 자아평가점수(SC)와 사회적자아점수(E)를 제외하고는 우수자의 要因別 점수가 모두 높은 편이다.

ㄴ) 도덕적자아점수(B) 차는 우수자가 81.55점이고, 경고자가 63.09점으로 약 20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회적 자아점수 차는 우수자가 44.5점이고 경고자가 66.05점으로 역시 약 22점의 차이를 반대로 나타내고 있다.

ㄷ) 학업우수자는 倫理的 수준이 높고 도덕적 자아개념이 높으며, 反面에 학사경고자는 우수자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아 倫理的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보겠다.

ㄹ) 사회적 자아점수차는 交友關係나 社會的 活動에 참여하여 적응하는 능력이 학사경고자에 있어서 높은 편이나 도리어 우수자의 경우 자신감을 가지고 交友關係를 넓히거나 活動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편이 못되며, 도리어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편이라고 보인다.

ㅁ) 경고자의 경우 가정적 자아점수가 다른 要因보다 낮은 것은 가족관계에서 오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交友關係로 보상행위를 하여 사회적자아가 높아지게 되었다고 본다.

ㅂ) 성격적자아점수는 두 집단 모두가 비교적 높은 편이며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자신의

〈표 6〉 자아개념점수 비교표

자 아 평 가 (SC)	학업우수자(11명)	학사경고자(68명)
	(백분위점수)	(백분위점수)
자 아 평 가 (SC)	42.27	48.5
A (신체적자아)	69.27	65.28
B (도덕적자아)	81.55	63.09
C (성격적자아)	73.72	68.93
D (가정적자아)	70.45	63.54
E (사회적자아)	44.5	66.05
D (분포점수)	47.72	47.0

행위를 자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本人의 研究結果로 보면 72년도보다 75년도에는 전체적으로 安定된 상태의 학생이 14%정도 높아졌다고 비교할 수 있다.³⁵⁾

5. 학사경고자의 자아개념검사에 대한 年度別 比較

학사경고자의 자아개념검사 결과를 入學年度別로 비교해 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ㄱ) 다음 표에서 비교해 보면 78학년도 입학자의 경우는 모든 要因이 평균적으로 백분위점수가 50이상이다. (단 자아평가점수를 제외하고)

ㄴ) 총 자아긍정점수가 평균 백분위점수가 51.85→62.19→60.69이다.

ㄷ)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학생수가 305점(백분위점수50) 이상인 학생이 24名(61.5%)에 달한다.

ㄹ) 76년도 회수자 13명의 개인별 검사를 검토한 결과 8명(61.54%)이 자기방어적이고 경계심이 많다고 판정할 수 있고 자아평가점수 28점이하(25%)자 4명과 분포점수 80점이하(25%)자 4명과 분포점수 80점이하(25%)자 4명을 합하여 8명이 이에 해당된다.

ㅁ) 77년도 회수자 16명중 8명(50%)으로 역시 자기방어적이며 경계심이 많다. S.C 4명과 D 점수 4명을 합하여 8명이 된다.

ㅂ) 78년도 회수자 39명중 SC 점수 28점이하가 7명이고 D 점수 80점이하가 7명으로 모두 14명(35.9%)이 자기방어적이다.

ㅅ) 해마다 검사자수가 늘어난데 비해서 자기방어적인 학생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 標集團에서 61.54(76년도)→50.0(77년도)→35.9(78년도)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母集團의 全體의 경향을 더 研究할 必要가 있다.

ㅇ) 78년도 경고자의 성격적자아점수 59점이상(백분위점수 50이상)이 28명으로 71.8%가 되어 성격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며 학업부진의 요인이 될만한 것을 발견할 수 없다

36) 崇田大學校 論文集 第六輯, p. 430

(표 7) 학사경고자의 연도별 자아개념점수 비교표

	1 9 7 6	1 9 7 7	1 9 7 8
SC (자아평가)	37.38	58.0	48.3
TP (총자아긍정점수)	51.85	62.19	60.69
A (신체적자아)	61.60	69.31	65.71
B (도덕적자아)	62.38	67.75	61.42
C (성격적자아)	60.54	71.88	70.5
D (가정적자아)	54.38	66.88	65.23
E (사회적자아)	67.15	62.43	6718
D (분포점수)	41.6	39.6	51.82

주 : 집단의평균 백분위 점수표시임

스) 자아개념검사와 학업성취도와의 相關性에 대한 評價

本人의 性格特性에 關한 研究³⁵⁾에서 自己評價點數(SC)와 성적과의 相關性에서도 밝힌 바 있으며 72년도 入學生의 SC와 入學後 1학년 성적과의 相關係數는 -11.2이며 同一檢査紙에 의하여 同一人에게 實施한 結果 72년 SC와 그들의 4학년 때 성적과의 相關係數는 .008로서 거의 相關이 없음을 나타냈다. 그리고 성격적 자아(C)와 성적과의 相關性은 72년도 C 요인 과 1학년 성적과의 相關係數도 .018로서 역시 相關性이 거의 없음을 보여 주었다.

이상은 자아개념검사의 標集集團의 연구결과였으며 各 요인별로 向上된 變化를 보여 주었다고 判定을 내릴 수 있었으나 성적과는 거의 상관이 없으며 간혹 個別學生에게는 있는 듯 하나 앞으로 個別研究될만한 것을 발견할 수 없다.

하나 앞으로 個別研究는 더해 봐야 알 수 있겠다”고 하였다. 今般 標集集團에서도 마찬가지로 현 상을 나타낸 것을 볼 때

가설 1. “社會化過程에 따라서 자아개념이 形成되므로 자아개념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에 대한 대답은 총자아긍정점수가 높아졌다고 해서 학업성취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 리라는 背定的인 實證을 얻을 수가 없었다.”

가설 2에서 “社會化理論과 人格理論의 相關性은 學業成就意慾을 左右하게 되고 따라서 학 업부진의 原因이 되므로 원인진단을 하여 客觀的인 自己理解를 시키면 學業成就度도 上昇될 것이다”라고 한 것을 中心으로 社會化過程의 그 어떤 다른 面이 영향을 주는가를 다음 학습 습관 검사에서 알아 보기로 한다.

6. 학업우수자와 학사경고자의 學習習慣檢査比較

학업우수자와 학사경고자의 학습습관검사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35) 崇田大學校 論文集 第六輯, p. 431

(표 8) 학업우수자와 학사경고자의 학습습관 검사 백분위비교표

요인별	M	T	R	총 점
학 사 경 고 자	40.60	48.11	41.15	46.07
학 업 우 수 자	89.63	77.0	92.88	90.7

<해석>

ㄱ) 학습습관점사지에 나타난 결과를 비교해 볼 때 두集團이 要因마다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ㄴ) 우수자의 경우는 학습에 대한 의욕 또는 動機(Motivation)가 백분위점수 89.63이고 학습요령 또는 기술(Techniques)이 77점이며 성격 또는 餘他要因(Reminder)이 92.88점이고 총점이 90.7점이다. 기술점수가 다른 要因들에 비해서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으나 높은 백분위점수에 속하고 있다.

ㄷ) 학사경고자의 경우는 M이 40.6점이고, T가 48.11점이며, R이 41.15점, 총점이 46.07점으로 모든要因이 백분위점수 50미만이며 특히 餘他要因 즉 성격적 환경적 要因들이 낮은 편인 것으로 보아서 學習에 대한 動機나 目標意識 또는 의욕이 낮은 것도 原因이라고 하겠으나 더우기 학습을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게 하는 餘他要因들의 영향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회화 과정의 모든 복합적인 요인들이 內包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학업성취도에 관한 절대적인 영향이 학습습관의 형성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더욱 연구할 課題인듯 하다.

7. 학사경고자의 학습습관검사 年度別比較

학사경고자의 학습습관검사 결과에 대한 비교를 다음 표 9에서 읽을 수 있다.

(표 9) 학업우수자 및 학사경고자 학습습관검사결과 비교표

연도별	요인별	M	T	R	총 점
학 사 경 고 자	1976	30.36	40.9	38.55	38.45
	1977	49.56	53.5	30.93	52.19
	1978	41.9	49.93	46.97	47.58
학 업 우 수 자	1976	90.0	58.5	92.25	89.0
	1977	87.4	89.0	96.4	92.8
	1978	91.5	83.5	90.0	90.3

<해석>

ㄱ)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77년도 경고자의 경우 특이하게 R 要因이 아주 낮게(백분위점수 37.93) 나타난 것은 자아개념검사에서 아주 열등감이 많은 학생 2명이 백분위점수 4점미만이

있었다. 이 학생은 다른 학생들보다(정상적인 연령에 입학한 58년생보다) 5년전임 (53년생 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ㄴ) 76년도 경고자의 경우 M 점수가 평균 백분위점수 30.36점에 불과하다. 이것은 76, 77, 78년 3년간에 걸쳐서 여러차례 4내지 5회정도 학사경고를 받으면서 계속한데서온 결과로 더욱 의욕상실이 심한듯 하다.

8. 1979학년도 학사경고자 조사

1979학년도 입학자중 학사경고 대상자의 통계를 자료로 하여 입시성적과 1학년 성적의 相關度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表 10〉 1979년도 입학 학사경고자 통계(연인원) ()안은 현인원임.

구분	대학별	문 리 대	법 경 대	공 대	2 부	계	비 율
경 고 자 수		8	12	68	65	153	
해 당 자 수		4	8	60	48	120	78.43
특 체 (해당자)		3(1)	—	—	—	3(1)	37.5
동 계 (해당자)		—	—	32(32)	37(29)	69(61)	51.88
산업체 (해당자)		—	—	—	11(6)	11(6)	16.92

위의 통계에서 나타난 숫자는

(1) 전체 경고자중 153명이 79학년도 입학자이며 그중에서 120명(78.43%)만 1, 2학기 계속했고 21.57%가 1학기만 수학과 탈락되었다.

(2) 해당자중 문리대는 3명이 특체 입학자이며 공대는 32명이 동계입학자이고, 2부대는 37명이 동계이며, 11명이 산업체입학자이다. 문리대는 특체 1명과 일반입학자 1명만이 남았을 뿐이고, 공대 해당자의 약 53퍼센트에 해당하는 학생이 동계입학자이며 2부대는 해당자가 전원 동계와 산업체 입학자이다.

(3) 입시성적과 1학년성적과의 相關關係

ㄱ) 78학년도 대상학생중 24명의 입시성적과 1학년 학업성적과의 相關關係를 조사한 결과는 .30이다. 이것은 상관이 있기는 하나 낮은 것이다.

ㄴ) 79학년도 입학생 학사경고자중 46명의 일반입학생의 경우는 .005이고, 46명의 동계 입학생의 경우는 -.025이며, 6명의 산업체입학생의 경우는 .027이다. 모두 상관이 없음을 나타냈다. 그러므로 입학성적과도 상관이 없는 1학년 성적의 학사경고의 원인은 다른 요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9. F學點을 받은 科目과 人員

〈표 11〉 개인당 학점을 받은 과목수

과 목 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 생 수	7	13	19	15	4	3	3	—	—	1	1	1

※ 단, 회수자에 한함.

ㄱ) 과목수는 개인당 1개 과목에서 12개 과목에 걸쳐서 또는 등록과목 전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ㄴ) 학사경고의 原因은 학과목의 난이도에도 영향이 있는듯하므로 조사한 결과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심함을 알 수 있었다.

ㄷ)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게 있어서 F學點을 받은 학생수가 10명 이상인 경우의 과목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물리, 물리실험 ② 수학 ③ 국어 ④ LAB ⑤ 화학 ⑥ 전산 ⑦ 도학과 영어 ⑧ 기독교 개론의 순서이다.

IV. 要約 및 結論

1. 大學生들의 自我實現을 위하여 세심한 配慮를 할 수 있도록 技術的 助力을 하므로써 學生自身을 客觀的으로 把握시키고 個性을 伸張시키는 일이 重要하다.

2. 學事警告의 目的은 學生들의 正常的인 人格發達을 위하여 學習指導上 制限條件을 제시하므로 自發的인 原因除去를 할 수 있게 하고, 自律的으로 學習意慾과 動機를 유발시키려는 學生指導의 政策樹立과 지도대책의 강구에 두었다.

3. 本 研究에서는 社會化過程과 自我概念이 學業成就度에 어떤 相關關係를 가지고 있는가를 다루려고 하였다.

4. 社會化의 概念은 生物學的 存在로서의 아이를 文化的 存在로서의 人間으로 成長 發達시키는 것이라고 定義하고, 社會化過程은 社會生活을 통하여 경험한 社會·文化的 要因들을 內面化시켜서 社會的 存在로서 同一化하면서 個性을 形成하는 過程이라고 하였다. 社會化理論에 있어서는 環境的인 影響을 받으면서 바람직한 行動樣式을 習慣化시키며 어떤 型에 맞추어서 社會化된다는 受動的인 理論과 아이 自身이 能動的이고 背定的인 行動者이므로 自發的으로 發達된다는 理論과의 論爭이 많은 學者들에 의하여 거듭되고 있다. 오늘날은 “文化的 繼承”으

로서의 社會化에서 “人間形成의 過程”으로서의 社會化로 달라져가고 있다. 그러나 두 見解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自己實現이란 人格完成의 目標에 대한 窮極的인 의미에는 共通點을 認定하고 있다. 즉 內在되어 있는 生物學的 構造와 文化的·社會的 構造 안에서 쌓여지는 경험과의 상호관계에서 이루어진 소산이라는 것이 Personality의 현대적 概念이다.

5. 人格發達에 關한 理論도 두 側面에서 다루어졌다. 그 하나는 生物的 遺傳的인 要素가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자극을 받아 社會的으로 “發達한다”는 發達面에 力點을 두는 理論이다. 다른 하나는 生物的 遺傳的 要素는 다만 기초에 지나지 않고 社會的으로 “形成된다”는 社會化過程속에서 形成面에 重點을 두는 이론이다. Allport의 理論은 포괄적인 입장에서 보았으며 “personality는 個人的 統合的인 사회적 役割方法을 決定짓는 內在的 特性의 力動的 體制이다”라고 定義하고 全體性, 統一性, 個別性, 力動性, 形成性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였다.

6. 自我概念과 學業성취도와의 關係

自我概念은 內在化와 同一化의 過程을 어떤 年齡에 어떻게 거치면서 變化되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發達段階에 따라서 進展한다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自我概念은 personality의 주요한 部分이라는 것만은 또한 확실하며 個人的 幸福과 發展에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여 왔다. 學業성적은 여러 요인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단순히 個人的 特性에만 달려 있다고 할 수 없고 複合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學校活動의 成功도와 自信感을 만들어 주는 것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學業不振의 原因을 (1) 좋지 못한 가정 환경 (2) 학습습관의 결함 (3) 정서적 불안감 (5) 不良交友關係 등의 要因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학습의 진전을 막는 要因으로 生得的 無能, 환경의 부족, 정의 적장애, 人間關係的 장애, 잘못된 習慣形成, 經驗의 부족, 방법의 부족 등이라고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要因들의 제거로 학습의욕과 學業성취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가설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7. 學者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學業성취동기가 낮은 학생들은 特히 達成해야 할 課業의 中間정도의 어려움이 있는 課業을 싫어하고 과목선택에 있어서도 學業성취가 쉬운 과목과 어려운 과목을 더 많이 택하였다. 그러나 성취욕구가 높은 학생들은 반대적인 경향이 있다. 즉 성취욕구가 높은 학생은 中間정도의 課業과 보통수준의 科目을 훨씬 더 많이 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8. 實態調査의 결과는 너무 제한된 범위내의 학생을 對象으로 하였으므로 一般化하는 문제가 좀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나 上述한 理論들에 비추어서 다음 두 가지 결론을 내려볼 수 있다.

(1) 自我概念檢査에 나타난 우수자와 경고자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 ㄱ) 경고자는 자아평가점수와 사회적자아점수 외에는 要因別 점수가 모두 낮다.
- ㄴ) 경고자는 도적자아점수와 가정적자아점수가 낮다.
- ㄷ) 경고자는 사회적자아점수가 높다.
- ㄹ) 경고자나 우수자 모두 성격적자아점수가 높은 편이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자아개념이 낮은 사람은 성격적 요인만 제외하고 기타 요인들은 학업성적과 相關性이 있다고 볼 수 있다. 72년도 연구에서 밝힌대로 성격적자아점수와 성적과의 相關性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72년도 결과—동학년기간의 성격과 성적의 상관계수는 -0.12 이고 동일인의 1학년때의 성격적 자아 점수와 4학년때 성적과의 상관계수는 $.008$ 이었다.)

(2) 學習習慣檢査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ㄱ) 우수자와 경고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 ㄴ) 경고자는 학습의 의욕과 동기, 학습의 요령과 기술적요인, 학습습관 형성에 미친 복합적인 요인들이 모두 낮다.

(3) 입시성적과 1학년 성적과의 相關關係도 별로 原因을 밝힐 만큼 相關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상의 여러 要因分析의 결과로 보아 사회화과정에서 習慣形成에 환경적 영향을 받아 學業成就度가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現代社會속에서는 生得的 要因보다 環境的 要因을 더 중요시하는 教育의 與件 조성에 강조점을 두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더욱 바람직한 教育與件의 제공을 위한 施策과 注意깊고 組織的인 指導過程이 重要視되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朴俊熙, 卞鍾憲, 教育의 心理的 基礎, 서울: 正益社, 1979, pp. 215-216에서 再引用
 方須同, 教育評價, 서울: 法文社, 1972
 徐鳳延, 性格과 適應, 現代心理學全書, 益文社, 1976
 鄭範謨外, 教育評價, 現代教育叢書, 서울: 大韓教育時報社, 1960
 趙義淑, 「心理—社會環境이 性格形成과 變容에 미치는 영향」, 崇實大學論文集(第二輯, 1970)
 _____, 「韓國大學生의 性格特性의 類型과 그 要因에 관한 研究」, 崇田大學校論文集(第六輯, 1976)
 _____, 「現代社會變遷過程에 있어서의 家庭教育의 位置」, 崇田大學校論文集(第八輯, 1978)
 阪本一郎, 圖說教育心理, 東京: 岩崎書店, 1964
 松原治郎, 核家族時代, 東京: 日本放送出版協會, 1975
 森岡清美編, 家族社會學, 東京: 有斐閣雙書, 1967
 調查資料: 崇田大學校 標集集團의 學業성적 및 入學查定成績.

- Chinoy, Ely, Sociology, New York: Random House, 1962
- Hall, C. S. and G. Lindzey, Theories of Personality (2n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70
- Horrocks, J. E., The Psychology of Adolescence, (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mp., 1962
- Horton P. B., and C. L., Hunt, Sociology,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 1964
- Lee, A. M. (ed.), Principles of Sociology, New York: Barnes & Noble, Inc., 1955
- McCandless, B. R. and R. J. Trotter, Children-Behavior and Development (3rd ed.),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77
- Merrill F. E., Society and Culture,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62
- Mouly, G. J., Psychology for Effective Teaching,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65
- Siegel, M (ed.), The Counseling of College Student, New York: The Free Press, 1968
- Smith, H. C., Personality Development, (2nd ed.),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 1974
- Zigler E. F. and I. L. Child, Socialization and Personality Development, Reading Mas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 1973

附錄一圖表目次

- 표 1. 학업우수자 총인원 통계
- 표 2. 우수성적 취득회수자 통계
- 표 3. 재적인원, 수검대상자 및 검사지 회수자 통계
- 표 4. 학사경고자 통계
- 표 5. 학사경고자의 재수검자 인원 통계
- 표 6. 1976, 77, 78년도 自我概念點數比較表
- 표 7. 학사경고자의 연도별 自我概念點數比較表
- 표 8. 학업우수자와 학사경고자의 학습습관검사 백분위비교표
- 표 9. 학사경고자의 연도별 학습습관검사 평균 점수 비교표
- 표 10. 1979년도 입학자 학사경고자 연인원 통계
- 표 11. 개인당 F학점을 받은 과목수

Personality Development and Socialization

—Factor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certain the factors which are related to academic achievement.

The following two assumptions were verified by the results of a Self-Concept Test and a Sutdy-Habits Test. The assumptions are: (1) Academic achievement will be affected by the level of self-concept. (2) Academic achievement will be affected by the type of socialization processes such as study habits and learning attitudes.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academic achievement is probably best illustrated by studies of underachievement.

This study involves a comparison of students who are achieving close to their potential with students who are not. The sampling group is Soong-Jun University freshmen of 1976, 1977 and 1978.

Self-concept and academic achievement seem to be related by the connection is not as straightforward as might be expected.

It may be that some students with poor self-concept do poorly in school because they don't try as hard as student with more confidence and better self-concept. Even th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academic achievement is complex. There is little doubt that success in school activities is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self-esteem.

The findings verify the point that the relation between self-concept and academic achievement is a complex one. School achievement depends on a variety of factors and cannot be traced to the existence of a single personal characteristic.

According to the test results, motivation, learning techniques and other factors are more influential than the level of the Self-Concept Test. Another factor of under-achievement is selection of subjects for study. Most of freshman testees took the course which are rather difficult and easy to study for the average student.

Personality development is defined as having different sides: one is that personality is

developed from the potential elements in the process of socialization and another is that personality is built up through interaction in a society.

Self-concept is the term usually used to refer to the area of private experience and self-evaluation. Self-concept, which is the sum total of personal awareness, evaluation, and expectation, comes from how one has been dealt with by others, how one has dealt with others, and how one has coped with life.

In formulating a self-concept one goes through the same stages and is subject to the same laws of learning as in the formation of any other concept or idea.

In conclusion, a further study should be made. However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ducational environment is curcially needed for personality development and for wholesome resocialization.

